

隨筆

## 달맞이꽃

시민운동을 한다는 어떤 이가 텔레비전에만 나오면 나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인공(人共)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20세기 중반에 태어난 나는 그런 혜택을 누리보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대대로 만석꾼 집안이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많은 재산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 대동아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공출(供出)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해방이 된 후에도 상(上)머슴, 중(中)머슴, 그리고 꼴머슴까지 다 제 식구랍시고 각시를 하나씩 데리고 우리 집 사랑채를 하나씩 차지하며 살 정도였다 하니 머슴을 부려 보지 못한 나로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저 상상만 할뿐이다.

내가 자란 곳은 전라도 광주(光州)이지만 우리 집은 원래 전라도 곡성군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남해 고속도로가 우리 조상의 선산 어귀로 지나가고 있고 그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농토와 들판은 대부분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이다. 가끔 그곳 곡성에서 만나는 먼 친척 어른의 입을 통해 “저어기 저 - 쪽 너머까지 네 할아버지 땅이었다”는 설명을 듣긴 하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는 감(感)조차도 없다.

얼마 전에는 곡성군 옥과읍 나지막하고 양지 바른 산중턱에 모셔 둔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다. 내일 모레가 벌써 중추절인지라 햇살이 서쪽 산등성이에 걸쳐질 즈음 들녘의 바람은 이미 설익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낮은 산기슭에 앉아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신 할머니의 쿼쿼하면서도 다정다감했던 체취를 떠올리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정원에는 온갖 풀과 일년초, 그리고 유실수들이 자라고 있었다. 동쪽으로는 대추나무가 두 그루나 있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다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석류나무가 있었다. 내가 지방의 수재들이 간다는 광주 일고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기념으로 단감나무를 정원 한 가운데 심으셨다.

“나 죽고 나면 단감이 열 것이다. 나중에 느그 각시하고 따 묵어라.”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감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내가 대학을 줄

업하기도 전에 주먹 만 한 열매를 대롱대롱 매달기 시작했다.

그 감은 섭섭하게도 단감이 아니어서 홍시가 되기 전에는 떨어서 먹을 수가 없었지만 육질이 토실해져서 잔가지가 축 처질 때쯤이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죽으면 감 열리나 했더니 벌써 열어 부렸다. 그런데 어째 이것이 떨어는 꼭 속 좁은 홀 애비 뺨뺨 하다.”

일찍 열매를 맺은 감나무가 대견하기도 하고, 그것이 떨어서 못 내 아쉽기도 하여 할머니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되뇌곤 하셨다.

여름이 되면 우리는 흙 마당 위에 평상을 펴놓고 ‘동인 구론산’ 광고가 씌어진 부채로 모기를 쫓으며 할머니가 들려주는 빗자루 귀신 이야기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초저녁이면 노란 달맞이꽃이 뼈벽거리며 꽃잎을 띄우는 모습을 보고 자연의 묘한 섭리에 감탄하곤 했다. 꽃잎이 펼쳐지는 모양을 끝까지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늘 같은 시간이면 흘러나오는 ‘김삿갓 북한 방랑기’에 어느덧 혼을 뺏겨 버리곤 하였다. 맑은 밤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꼬리표를 달고 흐르는 유성을 보고 소리 지르기도 하였다. 할머니는,

“누가 또 죽었는갑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하나 죽으면 하늘의 별도 하나씩 떨어진다고 그랬다. 그 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다.

어느 해 유월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네 할아버지가 하마터면 사변 나던 해에 우리 집 머슴한테 총 맞아 죽을 뻔했다.”

사변이 나고 미처 피난을 가지 못 했던 조 부모님은 이른 바 인공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때 북에서 내려온 공산당 패거리가 무섭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머슴살이하던 빨치산보다는 덜 했다고 한다.

당시에 머슴살이, 지게꾼, 리어카꾼 하던 사람들, 그리고 남의 눈을 소작하던 못 배우고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민 해방을 외치며 공산당 앞잡이로 변해 동네에서 콧뚱 깨나 꾸던 사람들을 마구 찢러 죽였다고 했다.

우리 집에서 중머슴을 하던 놈도 그 빨치산을 했다고 한다. 날마다 사람들을 동네 어귀에 모아 놓고는 인민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누가 그 꼴을 못 봐서 뭐라고 한 마디라도 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며칠 안에 송장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는 허리도 못 펴고 살던 놈이 하루아침에 빨건 완장을 두르고 나타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동무, 동무”하는 꼴이 참으로 사람 환장할 노릇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으셨다. 비록 많은 곡식과 돈을 빼기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해치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늘 그 중머슴의 아내와 자식을 ‘짐승 거두듯’ 붙잡혀 여기고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때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셨다.

“그 놈이 한 번은 따발총으로 동네 사람을 여럿 갈겨 버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놈 눈에 핏발이 서고 눈 꼬리가 올라가 있더라. 사람 몇을 죽이더니 제 정신이 달아난 모양이더라.”

그런데 그 ‘중머슴’은 국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죽었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후로 그 놈은 제 정신이 아닌 듯 제 마누라도 개 패듯 패고 같은 패거리끼리도 죽도록 찜질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어느 보름달이 등실하게 뜬 날 밤에 동네 어귀 도랑에 머리를 처박고 죽었다고 한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 하다고 한다. 나는 요즈음 시민 단체 한다고 유난을 떠는 어떤 이를 보며 할머니가 들려준 그 ‘중머슴’이야기를 떠올린다.

그 머슴 녀석이 했다는 짓거리로 미루어 그 녀석의 생김새를 멋대로 상상하는 건 내 자유겠지만 그 상상 속의 머슴 녀석의 이미지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어떤 이의 그것과 유사한 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2000년